

국제표준화회의의 참가보고

# 58차 IETF 회의

이동호 / 광운대학교

## 1. 서론

2003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58차 IETF 회의가 열렸다. 8개의 Area별로 새로운 과제들을 제안하고 각 드래프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다음 59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학계, 연구소, 기업 등에서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는 29개국 256개 회사의 1211여 명의 참석한 이번회의에서 미국, 일본 다음으로 3위에 해당한다. 57차 빈 회의에서는 40개국이 참가하였으나 29개국으로 줄었는데 이는 VISA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 주요 회의결과

IETF 회의는 8개의 Area로 구성되며 각 Area는 다수의 작업반이 존재하고 회의는 작업반별로 동시에 진행이 되므로 하나 하나의 결과를 설명하기는 지면관계상 어렵고 전체적인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36개의 프로토콜 표준화 과정(action)을 승인하였고, 36개의 문서를 승인하였다.

- 8개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새로 출범시켰다

Layer 2 Virtual Private Networks(l2vpn)

Layer 2 Virtual Private Networks(l3vpn)

Mobility for IPv4(mip4)

Mobility for IPv6(mip6)

MIPv6 Signaling and Handoff Optimization (mipshop)

Centralized Conferencing(xcon)

Internet and Management Support for Storage(imss)

Long-Term Archive and Notary Services (ltans)

- 6개의 작업반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Interfaces MIB(ifmib)

Network Access Server Requirements (nasreq)

SNMP Version 3(snmpv3)

Resource Capabilities Discovery(rescap)

ICMP Traceback(itrace)

Provider Provisioned Virtual Private

Networks(ppvpn)

- Sub-IP Area에서 대부분의 작업반을 다른 Area로 옮겼다(ccamp와 mpls → Routing Area).
- 2건의 항소를 다루고 있다(Tony Hain: Site-Local determination in IPv6, Todd Glassey: barring from WG list).
- online 투표의 활성화로 진행과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IETF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어려운 문제임).
- RFC는 3550부터 3645까지 확장되었다.
- DHCPv6가 최종 출간되었다.
- 보안 고려사항이 RFC 3552로 지정되었다.
- SIP 관련 문서가 많이 제안되었다.
- 재정관련 문제제기를 하였다(적자발생 가능).
- 행정적 처리를 조직화하여 개선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각 작업반별 상세한 회의결과는 프로시딩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ietf.org/proceedings/03nov/index.html>

### 3. Area Meeting 결과

이번 회의에서 한국인 인터넷 표준전문가가 제출한 약 25편의 드래프트가 채택되었고 11편이 발표시간을 잡아 발표하였다(첨부분서참조). 이는 전에 없이 활발한 활동으로 서울회의의 전망을 밝게 해준다. 또한 IETF 회의기간 중 Area별로 모여 드래프트 제출 및 발표현황을 점검하고 발표자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으로써 참가자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Area별 회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Internet과 O&M Area

##### 1) 활동사항

국내에서는 주로 v6ops WG, dnsop WG, multi6 WG 정도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v6ops WG에서 가장 활발하게 Draft가 기고되고 발표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ETRI 신명기 박사의 문서가 WG Work item으로 선정되었다.

- 문서명: Application Aspects of IPv6 Transition

dnsop WG에서는 지난 Vienna 회의에서부터 계속 논의되어온 DNS Discovery에 대한 Issue가 이번 회의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며, 이 부분에 ETRI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문서를 제안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적극적인 Follow up이 필요하다.

multi6 WG에서는 아직 많은 기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IPv6의 주요한 Issue 중의 하나로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WG이다.

##### 2) 주요 논의사항

현재 이 Area에 속한 WG이 약 23개이며 이 중 아직 국내에서의 활동이 미치는 WG은 약 3-4개 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국에서의 IETF 유치로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현재 ETRI, SAIT, 삼성전자 및 학계에서 본 Area에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draft 기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 나. 트랜스포트 Area

- 한국 IETF 회의에서의 기고서 제출 확대방안 논의
- Transport Area내에서 한국의 집중영역 논의  
GSMP, CCAMP, IPO 등의 영역에서 Optical 관련 MPLS, 스위치내의 제어관련, recovery-restoration 관련 기고 중, 기고서의 WG item 화하기 위한 전략필요
- SIP 관련 응용 중 conference control 관련 기고 준비중. 이 분야에서의 다양한 참여 필요
- 58차 회의이후 계속 온라인상의 미팅을 통하여 한국회의전 많은 기고서 도출을 위한 활동강화 실시
- 예상 관련 기고서 : 10편이상 목표

## 다. 보안 Area

### 1) 향후 드래프트 제출 및 추진 계획

- Seamless Integration of MIPv6 and AAAv6 (지정훈, ETRI)
- Credentials Enrollment Model for Single Authentication(윤재호, KISA)

### 2) 논의사항

- 차기 IETF 서울 회의에 각 기관별로 많은 전문가들의 참석 독려
- 중장기적 인터넷 보안기술 표준화 추진 전략
  - 산학연의 표준전문가 및 지원 인력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영역별로 국내 전문가들에 지속

적 및 조직적 활동지원

- IETF WG 의장단들의 협력을 얻기 위한 유대강화 방안으로 국내 학술행사 및 기타 자문 활동 등에 초빙

## 4. 59차 IETF 서울회의 준비

지난 57차 IETF 빈회의(오스트리아)에서 59차 회의를 서울에서 갖도록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IETF 개최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서울 회의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개최위원회하의 기술분과를 만들어 인터넷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표준문서를 제안하여 인터넷 표준화에 한국이 기여하고자 한다. 인터넷 전문가들의 draft 제출계획 점검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서울회의에 많은 draft가 제출되도록 유도하고 독려한다. 활발한 논의와 관심분야의 토론을 위해 Workshop을 2003년 10월 17일, 2004년 2월 3일 2회 개최한다. WG 의장단 진출 및 새로운 WG 구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 5. 참가후기

이번 회의를 통하여 Sub-IP Area는 사라지게 되었다. Sub-IP Area는 원래 2년간 활동을 목표로 만들어졌고 조금 기간을 넘겼다. 표준활동이 남아있는 ccamp와 mpls 작업반은 Routing Area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작업반은 활동을 종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IETF 표준화 활동의 특징이기도 하다. 새로운 표준화 활동이 필요하면 BoF를 거쳐 작업반을 만들고 표준화 활동이 미미하면 작업반을 종료하게 된다.

IT 경기의 침체와 9.11사태의 여파로 VISA 발급이 까다로워지는 등의 결과로 참가자 수가 감소하였다. 다음회의는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 지난 수 년간 유치를 위해 많은 분들이 애쓴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IETF 회의의 국내 유치와 더불어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제회의의 국내유치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국내 표준전문가들의

표준화활동이 요긴하다. 직접 draft를 제출하고,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IETF 회의의 국내유치의 중요성과 그 효용성을 국내 각 기관들에게 활발히 홍보하여, 본 회의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한다. 표준 관련 관계자들의 협조를 바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공적인 회의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첨부> 58차 IETF 회의 한국발표자 Draft 발표내용

정수환(승실대) NEMO WG Threat Analysis for NEMO draft-jung-nemo-threat-analysis-01.txt

이지훈, 노용성, 슈브란슈 싱(삼성종합기술원) IRTF ANS WG

Interlayer Interactions and Performance in Wireless Ad Hoc Network

draft-irtf-ans-interlayer-performance-00.txt

NSIS WG draft-lee-nsis-mobility-nslp-01.txt

MANET WG draft-lee-hmp-00.txt

박수홍(삼성전자) DHC WG Rapid Reply Option for DHCPv4 draft-ietf-dhc-rapid-commit-opt-00.txt

DNA BOF: IPv6 DAD Optimization Goals and Requirements

draft-park-dna-ipv6dadoption-requirement-02.txt

DNA BOF: draft-park-dna-latency-statements-00.txt

MANET WG :draft-park-manet-dns-discovery-globalv6-00.txt

MIPSHOP WG :draft-park-mipshop-nhmds-00.txt

최준균(ICU) MPLS WG Requirements for multicast service using a group label over MPLS

draft-choi-mpls-grouplabel-requirement-01.txt

ccamp WG에 발표하기로 하였던 5건은 agenda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ETRI 김영화 2건 포함).

최진혁(삼성종합기술원) DNA BoF Detecting Network Attachment in IPv6 Problem Statement

draft-jinchoi-dna-dnav6-prob-00.txt

백은경(서울대) nemo WG Multihomed Mobile Networks Problem Statements

draft-paik-nemo-multihoming-problem-00.txt

Multihoming Issues in Network Mobility Support draft-ng-nemo-multihoming-issues-02.txt(공동)

박종욱(KISA) PKIX WG Subject Identification Method draft-ietf-pkix-sim-01.txt

S/MIME WG Use of the SEED Encryption Algorithm in CMS draft-park-cms-seed-00.txt

신명기(ETRI) v6ops WG Application Aspects of IPv6 Transition

draft-shin-v6ops-application-transition-02.txt 

